

不妊被術主婦의 家庭的 背景에 關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家政大學

金 知 和

=Abstract=

A Study on the Family Situation of Sterilized Homemakers

College of Home Economics Ewha Womanns University

Chi Wha, Kim

A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evaluation on family situation of 900 homemakers those who had received tubal sterilization operation (laparoscopic and minilaparotomy) at family planning clinic, Seoul Red Cross Hospital from October 1974 to September 1977.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In age distribution, predominant age group consisted of those 31~35 years frequency of 43.2% and average age was 33.3 years.

2) Educational level showed that homemakers who finished primary school accounted for 37.3% of the total and those having middle school education comprised 28.7%, and 24.3% of them were high school graduates, 8.3% of them were college graduates.

On the other hand, husband's education level showed that, 37.6% of them were high school graduates, 29.7% were college graduates and 19.9% were middle school graduates, therefor, educational level of husbands was one step higher than wives.

3) In the gravidity at the tubal sterilization, the highest incidence (18.4%) among 853 cases was the group of gravida 5, and 16.2% gravida 4, and the gravidity ranged 1~23. Average gravidity of clients was 6.0.

4) Among the total number of 900 clients, 778cases (91.3%) had no experience of spontaneous abortion, history of 1 abortion in 5.9%, 2 abortions in 1.8%, and it showed the decreased incidence of spontaneous abortion recently. Average was 0.15.

As regarding induced abortion, in spite of only 142 homemakers (16.7%) had no history of induced abortion, 20.5% had experienced 1 induced abortion before sterilization, 17.7% had 2 induced abortions, 14.6% had 3 abortions, 10.3% had 4 abortions, and 0.2% (2 cases) had over 20 abortions. Average was 2.7.

5) In regarding to the number of living children, the greatest number (45.0%) of clients had 3 children, and 26.5% 2 children, 19.7% 4 children. Average number of their living children was 3.03.

6) Sex ratio of living children, among 18 clients those had 1 child, 17 homemakers had 1 boy and no girl, 1 homemaker had no boy and 1 girl only. Sex ratio showed that woman who had 2 boys and no girl accounted for 46.3%, however, those having no boy and 2 girls

ocmprised only 1.8% among 229 clients who had 2 children.

Among 389 clients who had 3 children, in spite of woman who had 3 boys and no girl comprised 16.5%, but no boy and 3 girls only 1.5%. Among 170 clients who had 4 children, homemakers with 4 boys and no girl accounted for 4.1%, however, no boy and 4 girls 1.8% of the total.

Among 52 clients, who had 5 children, woman with 5 boys and no girl comprised 3.9%, no boy and 5 girls 0%.

Among 7 cases who had 6 children, there were 3 cases who had 3 boys and 3 girls, but only 1 cases had 1 boy and 5 girls and so on.

These results showed a strong trend of male preference in Korea and this could be one of the inhibit factors for family planning.

緒 論

人類歷史¹⁾가 시작된 후 1650년까지는 지구성의 人口는 5億을 좀 넘었을 뿐이며 年平均人口成長率도 0.04%의 낮은 것이었다. 그 이유는 死亡率이 높은 때문이었다.

그후 약 1950년까지의 300年 동안은 세계인구는 4배 이상으로 늘어나 25億에 육박했으며 年平均人口成長率은 前期間보다 10배 이상인 0.5%가 되었다. 즉 産業革命, 保健組織의 발달로 그 死亡率이 많이 저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50年 이후의 期間은 經濟生活水準의 향상과 醫學의 發達로 인한 낮은 死亡率과 높은 出產率 때문에 年間 2.1% 정도의 큰 人口成長率을 보여주고 있어 識者間에는 地球上에 最大限으로 收容할 수 있는 人口를 걱정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태로 계속되면 現在의 人口가 35年後에는 2배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같은 人口의 成長은 이들 構成人口를 위한 保健, 教育, 社會, 安全, 福祉 등의 施設을 요구하게 되며, 경제성장이 勞動力增加率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失業이 증가되고 勞動力의 質의 低下를 초래하게 된다. 즉 人口增加의 抑制은 經濟의 高度成長을 가져 오는데에 크나 큰 要因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 巨大한 工業生産²⁾의 增大는 消費性を 높이고, 生活水準의 上昇을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資源의 消耗를 促進하고 環境破壞나 公害問題까지도 부각시키게 되어 여러가지 資源이 不足한 나라에서는 世界의 一員으로서 共存하려면 이미 人口의 緩慢한 增加조차도 許容할 수 없는 時期에 도달하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人口추세는³⁾ 1955년에 21,502,000명이었는데 1960년에 24,954,000명 1966년에 29,160,000명, 1970년에 31,439,000명으로서 1955~1960년에 2.9%, 1960~1966年 사이에 2.7%, 1966~1977년에는 1.9%의 年平均人口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人口增加率의 減少는 世界에서 그 類例를 찾아보기 드문 급격한 減少로서 이는 生活環境의 개선 및 醫療施設의 擴大등으로 死亡率이 減少되었음에 不拘하고 그 出生率이 急激하게 低下된데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解放以後의 우리나라의 人口政策은 1961年 家族計劃事業이 政府事業으로 採擇되고 推進된 것을 그 시효라고 할 수 있으며 그후 이 事業이 經濟開發計劃에 포함되어 事業普及을 위한 保健組織의 擴充과 家族計劃事業의 長期計劃을 樹立實施하게 되었다.

이 事業은 執行機關인 保健社會部, 弘報機關인 大韓家族計劃協會, 研究教育機關인 家族計劃研究院의 三元體制로 運用되고 있다.

1971年⁴⁾ FAO의 營養局의 家政用役部는 경제개발도상국가의 家庭生活의 質의 向上을 주로 돕는 家庭生活改善計劃(planning for better family life)이란 國際會議를 開催하였고, 同年 가을에는

美國家政學會傘下的 國際家族計劃事業의 主導로서 家族計劃에 있어서의 家政學의 役割(the role of home economics in family planning)에 대한 國際會議가 教育的 시도로서 發起되었다.

이상 두곳의 國際機關에서 主導한 회의의 결과는 신속하게 世界의 家政學界에 작성과 제공, 그리고 적극적인 關心을 환기 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家政學學者, 教授, 教師등을 위한 “家政學과 家族計劃”에 對한 研究會를 大韓家政學會主催로 수차례 걸쳐서 가진 바 있었으며 전반적인 家政科教育에다 家族計劃教育을 關聯시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計劃性이 없는 妊娠은 원하지 않은 子女를 낳을 것이며 責任있는 養育도 못할 뿐더러 結果的으로 質의生活을 저하시키게 된다.

人口膨脹의 억제 또는 産兒制限의 類似語 등에서 보는 抑制 또는 制限이란 語感에 비해서 家族生活改善計劃이라는 말은 家族計劃의 擴大라는 語意를 품고 있다. 即 家政學分野의 역할이며 사명인 家族生活改善計劃의 目標은 家族計劃을 보다 効率化시킴에 있다고 하겠다.

一定한 數의 子女를 가진 主婦들은 간편하고 副作用이 적고 한번 施術하면 다시 번거로운 조작을 加하지 않아도 피임이 되는 永久避妊法이 必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부터 導入된 腹腔不妊手術과 1974년경부터 脚光을 받기 시작한 minilaparotomy 가 病院家族計劃의 一翼을 담당하게 되어 現在 女性受胎阻止의 主軸을 이루게 되었다.

著者は 이 點에 着眼하여 우선 女性不妊手術을 받은 婦人의 家庭의 背景을 調査하여 年齡의 關係, 教育程度, 特히 現在子女의 性化에 關하여 檢討하였다.

研究材料 및 方法

1974年 10월부터 1977年 9월까지 滿 3年間に 서울市內 某綜合病院(家族計劃事業指定病院) 産婦人科 및 家族計劃相談室을 찾아와서 女性不妊手術을 問議은 婦人中 卵官不妊手術 即 腹腔鏡不妊手術 或은 minilaparotomy 를 실시로 手術받은 主婦 900名의 가정적 배경중 手術時의 年齡, 教育程度(患者 및 그 配偶者), 經驗한 妊娠回數,

流産(自然 및 人工), 生兒數, 生兒의 性比 등의 몇가지 사항에 關하여 조사 검토하였다.

이 調査는 斷種手術者의 登錄時에 一定한 調査者에 의하여 慎重한 問答으로 작성 되었으며 조사요원은 가족계획상담에 10年 以上 從事한 有資格指導員 1명인 始終一貫하여 材料作成을 담당하였다.

研究成績

1) 年齡分布

調査對象 900名의 婦人中 가장 많은 年齡群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35歲群이며 全體婦人의 43.2%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36~40歲群 27.8%이고, 26~30歲群이 24%로 근소한 차이로 第3位로 되어 있다. 그리고 斷産期에 가까운 또는 이미 단산기에 들어간 41~45歲群에서와 25歲未滿群에서도 각각 3.1%, 1.9%씩 보였으며, 平均年齡은 33.3 歲였다.

Table 1. Age distribution

Age	Cases	%
20~25	17	1.9
26~30	216	24.0
31~35	389	43.2
36~40	250	27.8
41~45	28	3.1
Total	900	100.0

Average: 33.3

[2] 教育程度

우선 斷種을 願한 婦人 900名의 이수한 학교 교육관계를 보면 Table 2와 같이 900名 婦人中 國卒群이 37.3%를 차지하고, 다음 中卒群의 28.7% 高卒群의 24.3%가 뒤달렸으며 大卒群이 8.3%이었고 無學群이 1.3%있었다.

不妊手術을 받은 婦人의 男便들의 教育程度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高卒群이 37.6%로 全體의 3분의 1선을 넘고 있으며 그 다음이 29.7%의 專門大學群이었고 中卒, 國卒이 각각 19.9% 및 12.6%로 뒤따랐고, 男便이 無學인 것도

Table 2. Education (wife)

Education	No.	%
none	12	1.3
primary school	336	37.3
Middle school	258	28.7
High school	219	24.3
College, univ.	75	8.3
Total	900	99.9

Table 3. Education (Husband)

Education	No.	%
none	3	0.3
primary school	113	12.6
Middle school	179	19.9
High school	338	37.6
College, univ.	267	29.7
Total	900	100.0

0.3%이었다.

[3] 妊娠回數

妊娠回數의 質問에 正確한 大답을 해준 婦人은 總調査 900名中 853名이었다. 가장 多頻한 妊娠回數로는 22回 및 23回妊娠經驗者가 각각 1例씩 있는가 하면 1回妊娠으로 1兒를 얻은뒤 斷產手術을 敢行한 婦人이 3例 있었다.

가장 많은 婦人들(18.4%)이 5回妊娠을 經過한뒤 斷種하였으며, 4回妊娠(16.2%), 3回妊娠(13.3%), 6回妊娠(12.7%), 7回妊娠(10.4%), 8回妊娠(8.4%), 9回妊娠(5.4%) 등이 뒤따랐으며 其他는 Table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으며 平均妊娠回數는 6.0 이었다.

[4] 流產關係

過去의 流產關係에 대해 正確한 大답을 해준 婦人은 900명중 852名이었다(Table 5). 自然流產經驗數에 있어서는 無經驗者가 91.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이 1회 經驗者가 5.9%, 2회 經驗者가 1.8%, 등이며 人工流產에 비해 적은 數로 나타나 있고 平均自然流產回數는 0.15 이었다.

人工流產에 있어서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회 有經驗者가 20.5%로서 가장 많은 婦

Table 4. Number of Pregnancy

No. of preg.	No.	%
1	3	0.4
2	35	4.1
3	113	13.3
4	138	16.2
5	157	18.4
6	108	12.7
7	89	10.4
8	72	8.4
9	46	5.4
10	31	3.6
11	20	2.3
12	13	1.5
13	12	1.4
14	5	0.6
15	3	0.4
16	1	0.1
17	2	0.2
18	3	0.4
22	1	0.1
23	1	0.1
Total	853	100.0

Average: 6.0

Table 5. Incidence of Spontaneous Abortion

Spont. Abort.	No.	%
0	778	91.3
1	50	5.9
2	15	1.8
3	2	0.2
4	2	0.2
5	1	0.1
6	1	0.1
7	2	0.2
10~	1	0.1
Total	852	99.9

Average: 0.15

人이 경험하였고, 다음 2회 有經驗 17.7%, 1회 經驗者가 16.7%이었고 3회가 14.6%, 4회가 10.3%, 5회가 7.6%, 6회가 4.7% 등이며 人工流產이 많은 것으로는 10회가 14例, 11회가 2例, 12회가 2例, 13회가 1例, 15회가 3例, 20회 이

Table 6. Incidence of Induced Abortion

Induced Abort.	No.	%
0	142	16.7
1	175	20.5
2	151	17.7
3	124	14.6
4	88	10.3
5	65	7.6
6	40	4.7
7	24	2.8
8	16	1.9
9	3	0.4
10	14	1.6
11	2	0.2
12	2	0.2
13	1	0.1
15	3	0.4
20	2	0.2
Total	852	99.9

Average: 2.79

상이 2例나 있었으며, 平均人工流産回數는 2.79 이었다.

[5] 子女數

총 900명중, 現存하는 生兒數 및 그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힌 婦人은 865명이였다.

斷種手術을 받을 당시 婦人이 가지고 있는 子女의 數는 Table 7과 같다. 즉子女 3명을 가지고 있는 婦人이 45%로 제일 많았고, 다음이 子女 2명의 26.5%이며 子女 4명의 19.7%가 그뒤를 따랐으며, 平均子女數는 3.03 이었다.

Table 7. Number of Living Children

No. of child	Case	%
1	18	2.1
2	229	26.5
3	389	45
4	170	19.7
5	52	6.0
6	7	0.8
Total	865	100.1

Average: 3.03

그뒤 子女 5名群(6.0%), 子女 1名群(2.1%), 子女 6명群(0.8%)의 順으로 되어 있다.

가지고 있는 生兒의 數別로 그 性比를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子女數 1의 性比

子女 1명을 가지고 있는 婦人群에서 子女의 性別分布를 보면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男無女의 婦人이 17명이고 無男獨女의 婦人이 單 1명뿐이였다.

Table 8. Sex Ratio of one Living Child

Sex Ratio of Children	♂ 1	♂ 0	Total
	♀ 0	♀ 1	
No	17	1	18

(2) 子女數 2의 性比

子女 둘을 가지고 있는 婦人의 子女性比는 Table 9와 같다. 즉 총 229명중 1男1女일 경우가 52%이었고, 2男無女인 경우가 46.3%이었는데 비해 2男無女인 경우는 單 4例(1.8%)에 不過하였다.

Table 9. Sex Ratio of 2 Living Children

Sex Ratio	Sex Ratio of 2 living children			Total
	♂ 2 ♀ 0	♂ 1 ♀ 1	♂ 0 ♀ 2	
No	106	119	4	229
%	46.3	52	1.8	100.1

(3) 子女數 3의 性比

子女셋을 가지고 있는 婦人 389名에 있어서 子女의 性比를 보면 Table 10과 같다.

Table 10. Sex Ratio of 3 Living Children

Sex Ratio	Sex Ratio of 3 Living Children				Total
	♂ 3 ♀ 0	♂ 2 ♀ 1	♂ 1 ♀ 2	♂ 0 ♀ 3	
No	64	22.4	95	6	389
%	16.5	57.6	24.4	1.5	100

즉 2男 1女가 過半數로 57.6%이며, 1男 2女가 24.4% 3男無女가 16.5인데 비해 無男 3女인 경우에는 겨우 6例(1.5%)에 지나지 않았다.

(4) 子女數 4의 性比

子女 넷을 가지고 있는 婦人은 170명이었고 그 子女의 性比는 Table 11에 표시한 바와 같다 2男 2女가 가장 많아서 過半數인 51.2%이었고, 그 다음이 3男 1女와 1男 3女가 각각 21.8%와 21.2%로 비슷하였으며 4男無女의 4.1%와 無男無女의 1.8%는 극히 적었다.

Table 11. Sex Ratio of 4 Living Children

Sex Ratio of 4 Living Children						Total
Sex Ratio	♂ 4 ♀ 0	♂ 3 ♀ 1	♂ 2 ♀ 2	♂ 1 ♀ 3	♂ 0 ♀ 4	
No	7	37	87	36	3	170
%	4.1	21.8	51.2	21.2	1.8	100

(5) 子女數 5의 性比

子女 다섯을 가진 斷種手術婦人은 52명이 있으며 (Table 12) 그중 2男 3女の 어머니가 42.3%(22例)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男 2女와 1男 4女가 同數(11例)로 각각 21.2%를 차지하였고 4男 1女가 6例, 5男 無女가 2例, 無男 5女는 한 예도 없었다.

Table 12. Sex Ratio of 5 Living Children

Sex Ratio of 5 Living Children						Total	
Sex Ratio	♂ 5 ♀ 0	♂ 4 ♀ 1	♂ 3 ♀ 2	♂ 2 ♀ 3	♂ 1 ♀ 4		♂ 0 ♀ 5
No	2	6	11	22	11	0	52
%	3.9	11.5	21.2	42.3	21.2	0	100.1

Table 13. Sex Ratio of 6 Living Children

Sex Ratio of 6 Living Children				Total
Sex Ratio	♂ 3 ♀ 3	♂ 2 ♀ 4	♂ 1 ♀ 5	
No	3	3	1	7

(6) 子女數 6의 性比

子女 여섯을 가지고 있는 斷種婦人은 7例있었는데, 子女의 性比를 보면(Table 13), 3男 3女와 2男 4女가 각각 3名씩 있었고, 1男 5女가 1例 있었으며 其他는 1例도 없었다.

總括 및 考察

妊娠이 계속되는데에 따르는 여러 樣相에 있어서 아직 不明한 點이 많지만 適當치 않은 間隙으로 妊娠이 되풀이 될 때 蛋白質 칼슘 鐵分 등 榮養分의 備蓄이 줄어들어가는 것은 明白하다. 또 產科的 併發症이나 母性의 健康이 分娩回數가 많아짐에 따라 惡化된다는 것은 周知되어 있는 일인데 特히 社會經濟的 與件이 不備한 環境에서는 出產回數와 母性의 年齡이 크게 작용한다.

出生터우리도 出生體重과 깊은 關係가 있고 嬰兒의 生存과 健康에 중요한 役割을 한다고 하며 最少限年의 妊娠터우리가 出生體重을 늘리는데에 도움을 준다는 研究가 있으며 짧은 터우리가 出生時體重을 적게 하고 神經症이나 知能知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周產期 死亡率이 妊娠年齡 및 回數와 밀접한 關係가 있고 이 두 要因이 家族計劃에 의해서 調節될 수 있다는 事實, 特히 近間에 넓이 普及되고 있는 女性不妊手術에 의해 그 調節에 크고 決定的인 影響을 주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初產의 경우 周產期 死亡率이 높다는 事實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率과 多回妊娠 사이에 높은 相關이 있다는 것은 前부터 지적되어 온 事實이다⁵⁾.

一定한 數의 子女를 確保한 뒤의 避妊은 그 簡便性으로 보나 經濟性으로 보나, 安全性으로 보아 特히 그 確實性으로 보아 卵管不妊手術을 舉論하게 되며 最近 關係機關이 뜻을 모아 이 方法을 추천하고 있고 또 1973年以來 各家族計劃 指定醫療機關에서 活潑히 施術하고 있다.

여기 著者는 所謂 斷種手術이라고 하여 從前에 忌避되어 왔던 女性避妊 手術이 最近의 產後 卵管不妊手術 腹腔鏡不妊手術 및 minilap 不妊手術等 比較的 새롭고 簡便한 手術式이 考按되면서 永久避妊을 願하는 婦人들에게 歡迎을 받게

된 것이다.

著者が調査한 被術婦人の年齡關係를 보면 全 900名中 31~35歲間이 43.2%이고, 36~40歲間이 27.8%로 卽 30대 부인이 全體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張⁸⁾의 78% 및 80.8%보다 약간 낮으나 30대 부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은 同一한 傾向이다. 元⁷⁾等은 31~35歲가 38.5%, 36~40歲가 33.8%의 順이고, Black⁸⁾의 統計는 29歲以下가 35.7%, 30~34歲는 28% 35~39歲가 28.7%로 되어 있다. Kwak, et al⁹⁾에 依하면 30~34歲가 41.5% 35~39歲가 38.8%로 30대가 80.3%가 되는 셈이다. 김, 이¹⁰⁾ 등에 의하면 산후난관 불임수술 부인에 있어서 30~34歲가 48.7%, 36~39歲가 23.9%이어서 30대가 72.6%를 차지하여 저자의 빈도와 비슷하였다.

受術者の 教育程度는 國卒이 가장 많아서 37.3%이며 다음이 中卒, 高卒의 順인데 Kwak 등의 3044名의 調査에서는 中·高卒合쳐서 53.8% 이어서 著者の 中高卒合친 53.0%와 一致된다. 河朴外¹¹⁾의 162例의 調査에서는 中·高卒合이 50%이며 國卒이 33%, 專門大學이 14.2%로 報告하고 있으며 김, 이 等¹⁰⁾은 高卒群이 44.5%로 가장 많았고 大卒이상인 40.1%로 고교이상 대졸이 全體의 84.6%를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各機關의 弘報活動과 매스컴의 계몽으로 점차로 사회각층의 부인간에 理解와 認識이 높아가서 各層에 別다른 差異없이 受術을 願하게 되는 傾向이 보이고 있다.

不妊手術을 받은 男便들의 教育程度를 보면 高卒群이 37.6%로 全體의 3分の 1선을 上廻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專門大學群의 29.7% 이어서. 婦人の 教育程度 보다 한단계 내지 두단계 높은 程度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一般的으로 男便의 學歷이 妻의 學力보다 한단계 높든가 或은 同等인 配合이 많은 結果가 아닌가 보여진다. 그러나 受術者の 男便의 教育程度에 關한 報告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別로 보지 못하고 있다.

受術當時에 經驗한 總妊娠回數는 母性保健面에서도 重要한 問題이다. 正確한 對答을 提示한 853名中 最多妊娠數는 23회이고, 1회妊娠을 經

過한 婦人도 3例 있었다. 가장 많은 婦人(18.4%)이 5회의 經驗者이며 다음의 4회, 3회, 6회의 順이었는데 이것은 정, 우, 이¹²⁾ 등의 부인과적, 산과적 난관불임수술 322例의 연구에서 보여준 임신회수 3회의 21.4% 4회의 17.1%, 5회의 12.7%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되어있고, 이¹³⁾ (1974)는 평균 5.3, Prystowsky 및 Eastman¹⁴⁾은 6.7로 보고하고 있으나 최근에 이르러 점차로 임신회수가 낮아지는 傾向 에 있다.

受術婦人이 受術當時까지 경험한 自然流產數를 보면 總應答者 853名中 自然流產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91.3%(778例)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회, 2회 有經驗者가 약간 적 있었으나 5회以上, 特히 10회以上 有經驗者도 少數나마 있었는데 人工流產 有經驗者에 比해 顯著하게 적다는 事實은 注目할만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문제에 關한 報告는 別로 論에 띄이지 않는다.

人工流產에 關한 報告는 多數나와 있는데, 정우, 이¹²⁾ 등은 부인과적, 산과적 난관불임술환자, 즉 최근에 유행된 복강경이나 minilap 난관불임술 이외의 방법으로 불임술을 받은 부인 322名의 조사에서 人工流產無經驗者가 0.4%, 1회 有經驗者가 18.0%, 2회 14.6%, 10회以上이 0.3%로 보고하고 있으며, 元¹⁵⁾ 등은 人工流產을 經驗한 婦人이 거의 80%에 達한다고 하였으며 朴等¹⁶⁾은 147名의 調査에서 人工流產 3회經驗者가 38.8%로 가장 많았고 3회~6회 以上 經驗者가 過半數를 차지하였으며 無經驗者는 13.6%에 不過하였다고 하였고, 張⁹⁾은 1500例의 研究에서 人工流產을 경험하지 않은 婦人은 10%以內이며 3회以上 有經驗者가 全體의 60%나 된다고 하였다.

本研究에 있어서는 人工流產 無經驗者는 全 852名中 16.7%(142名)로서 前記의 정, 元等의 보고 보다는 적으나 朴等의 報告와 비슷하며 張의 보고 보다는 若干 많은 中間的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1회有驗者가 20.5%로 가장 많았으며 前述한 여러 報告者의 報告와는 달리 3회以內가 過半數(5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런 점은 점차로 임신을 적절히 하고 人工유산의 회수를 줄이

고, 필요한 시에 난관불임술을 택하게 되는 추세를 보여주는 사실이 아닌가 해석된다.

다음이 가장 문제되는 受術當時婦인이 가지고 있는 子女의 數인데 이것은 家族의 크기 및 子女의 性比等 複合的인 要素가 내포되어서 子女의 數를 計劃, 主로 制限하는데 많은 比重을 가지고 있다.

家族計劃을 원활히 수행하는데에 阻害要因中的 하나가 子女의 數 및 男兒選好思想이 있다¹⁷⁾ 무슨 理由에서이든 子女數를 많이 가질수록 幸福한 것으로 생각했던 過去 오랫동안 우리 社會의 傳統的인 規範으로 되고 있었다. 이러한 社會規範은 우리가 必要하다고 해서 쉽사리 바꿀 수 없는데 根本的인 問題가 있다. 社會的 또는 國家的인 要求에 依해 家族計劃事業이 政府의 生産調節政策의 主要手段으로 採擇된 以後 1965年 까지도 婦인들이 생각하는 理想子女數는 各線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그러한 子女價値觀의 變化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問題性이 있다.

1970年代의 初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實態調査結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女性들이 생각하고 있는 理想子女數는 95%以上이 3名 또는 그 以上으로 나타나 있다¹⁷⁾. 1973年度 全國 家族計劃 및 出產力調査(가족계획연구원)에서 까지도 비록 과거의 4명 수준의 理想子女數가 3.1명으로 줄기는 하였으나 3名 또는 그 이상의 子女를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婦인이 무려 79%나 되는 높은 수준으로 維持되고 있다. 즉 子女數의 規範變化를 위한 계속적인 弘報活動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 婦인들의 理想子女數는 二子女價値觀에 접근하기에는 상당한 間격이 있다고 본다.

1965년부터 1973年 사이에 이루어진 主要出產力調査¹⁷⁾에 따르면 全國的으로 3명의 子女를 이상적이라고 하는 비율은 꾸준히 上昇하여 초창기에 1/3이던 것이 73年 調査에서는 그 비율이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子女數名이 최소한의 希望임을 뜻하며 이는 子女數의 크기에 대한 일반적인 規範으로 急速히 굳어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와같은 理想子女數는 先進諸國에서의 2명수준(오스트레일리아 2, 서독 2)에 비해 1명의 차

의밖에 되지 않지만 比率上으로는 50%나 높은 셈이며 特記해야할 事實은 先進國家에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理想子女數보다는 실제로는 갖는 子女數가 더 많다는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

現存 子女數에 대한 정확한 應答을 준 865명에 대한 本調査에 나타난 樣相을 보면 子女數 3명의 婦인이 全體의 45.0%를 차지하였으며 2名子女가 次位로 26.5%이고 3位가 4子女의 19.7%이었다. 다음이 5子女의 6.0%이며 1子女의 婦인은 全體의 2.1%(18例)에 지나지 않았다.

美國에 있어서 Clifford Wheelless¹⁸⁾는 2名群이 22.5%, 8~4名群이 54.7%, 5~9名群이 17.6%의 百分率을 報告하고 있다.

數年來 韓國의 各家庭에서 理想으로 하고 있는 子女數 및 各種不妊手術을 施術받을 때의 現存하는 子女數에 관한 報告를 보면 다음과 같다.

朴¹⁹⁾등에 의하면 1973年 韓國農村男便들의 理想子女數는 婦인들의 그것에 비해 그리 두드러지는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아들 1.8명, 딸 1.1명, 아들 딸 없이 0.4명을 원하여 모두 3.3명을 지적하고 있는데, 婦인들은 아들 1.9명, 딸 1.1명, 아들 딸 상관없이 0.6명으로 모두 3.6명을 理想的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오히려 婦인들의 理想子女數가 男便들이 말하는 것보다 약간 많다.

腹腔鏡手術을 받은 婦인 3644名에 있어서 受術當時 子女數에 關해서 Kwak et al⁹⁾은 被術時에 子女數 3名이 43.7%, 4名이 34.9%, 2名の 18.7% 5名 以上이 12.3% 1名이 0.4% 無子女도 0.03% 있었다고 하였다. 著者의 1977年度 865名에 對한 調査에서는 子女數 3名이 45%, 2名이 26.5%, 4名이 19.7%로서 最多頻度는 子女數 3名 가진 婦인이어서 이點 Kwak의 調査와 一致되나, 次位에 있어서는 Kwak의 4名에 대하여 著者는 2名이고, 3位는 Kwak의 2名에 對해 著者는 4名이었다.

一方 韓國內의 여러 學者의 調査를 보면 張⁶⁾은 3子女가 47.3%(300名中), 및 48.2%(1200名中)이고, 2子女가 20%(300名中), 및 22.9%(1200名中) 4子女가 22.3%(300名中) 및 21.3%(1200名中) 이었다.

朴, 外¹³⁾는 3子女가 40.4%, 2子女가 23.8%

4子女가 21.8%이었으며, 元外¹⁵⁾는 3子女 33.8%, 2子女 26.2%, 4子女 23.1%, 5子女 以上이 15.4%이고, 김, 이¹⁰⁾은 3子女가 46.2%, 2子女가 26.5%, 4子女가 18.7%, 6子女가 6.0% 등으로 되어 있다.

또 하, 박¹¹⁾은 子女數 3명이 41.4%, 로 가장 많았고 4명이 25.4%, 2명이 19.8%, 5명이 12.3%, 1명이 0.6%로 되어 있으며, 영구적 피임수술을 받은 부인은 생존자녀수 2명 이하가 20%에 지나지 않았으며 3명 이상이 80%나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몽교육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정, 우, 이¹²⁾ 등은, 질식, 복식 산후 및 제왕절개시 난관불임수술을 받은 婦人 總 322명의 調査에 있어서 3子女를 가진 婦人이 42.9%, 2子女가 34.2%, 4子女가 14.0%, 5子女가 5.9%로 著者의 順位와 類似하다.

著者의 研究에서 被術婦人의 가지고 있는 子女의 性比를 分析해 보면 아주 興味있는 事實을 알 수 있다.

子女數 1名群의 婦人 18명에 있어서 子女의 性比를 보면 1男 1女가 17例인데 比해 無男 1女는 1例에 不過하였다. 即 1兒를 가지고 斷種을 하는 限이 있더라도 男兒하나면 할지라도 女兒 하나로는 不妊을 決心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子女 둘을 가진 婦人群에 있어서는 229名中 2男 無女가 46.3%, 1男 1女가 52.0%, 인데 反해서 無男 2女는 1.8%에 不過하여서 1男 1女 또는 2男 無女에 있어서 不妊을 決心하는 例가 많은데 比해 無男 2女로는 殊체로 不妊을 決心하기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子女 셋을 가진 婦人群에 있어서는 全389例中 2男 1女가 가장 많아서 57.6%를 차지하고 있어서 2男 1女만 가지면 홀가분하게 不妊에 臨하는 現實을 엿볼 수 있다. 다음이 1男 2女이며 24.4%, 셋째로 3男 無女의 16.5%인데, 反해 無男 3女는 1.5%에 不過하였다. 即 子女數 셋이 가장 많음은 前項의 子女數別로 볼때, 이미 가장 많은 頻度를 보여 주었으나 이것은 역시 2女 1男가 가장 많은 數를 차지하고 있는데 起因한다고 보아도 過言이 아니다.

子女 넷을 가진 群人 170名에 있어서는 2男 2女가 가장 많아서 51.2%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3男 1女의 21.8%이며 4男 無女의 4.1%에 比해 無男 4女는 1.8%에 不過하였다.

5人子女群에서도 같은 5子女라 할지라도 5男 無女가 3.9%인데 比해 無男 女는 한例도 없다는 事實이 注目되며 같은 여섯子女라도 7名中 3男 3女가 3例, 2男 2女가 3例인데 比해 1男 5女는 1例에 不過하였다. 이상의 子女性比를 通해 볼때, 같은 數의 子女를 가진 婦人이라 할지라도 一定한 數의 男兒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여간 하여 不妊手術을 받지 않는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 家庭에서는 男兒選好의 傾向이 뚜렷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永久避妊이나 不妊에 파고들기 어렵게 하는 阻害要因이 된다는 事實이다.

정, 우, 이¹²⁾ 등은 부인과적, 산과적 불임수술을 받은 322명의 婦人을 調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농후하여 生存男兒의 數로 본 卵管不妊手術의 동기로 본 결과 1명의 男兒도 없는 경우에 卵管不妊手術을 받은 경우는 단지 9例(2.9%)에 불과하였으며, 거의 大部分인 86.3%에서는 2~3명의 男兒가 있는 상태에서 斷産手術이 시행되었고 平均 男兒數는 1.7名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계획사업에서 主唱하는 2名자녀 낳기 운동보다 많은 2男 1女의 子女를 가진 婦人에서 卵管不妊手術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김, 이¹⁰⁾ 등은 産後卵管不妊術을 받은 117명의 婦人에서 2男 1女群이 29.9%로 가장 많았고, 1男 1女群이 16.2%이었으며 아들만 2名以上이고 대상자가 14.5%인데 比해서 딸만 5名인 경우 0.5%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1976年 Kwak et al⁹⁾은 2男 1女의 子女를 가진 婦人이 가장 많았으며 平均 男兒數는 1.9이며 平均 女兒數는 1.4이며 男兒 好選의 傾向을 보인다고 하였다.

朴, 鄭, 韓¹⁹⁾ 등은 1973年 韓國農村男便들의 家族計劃姿勢에 있어서, 男兒選好의 問題에 關係서는 婦人들이 아들을 얻을 때까지 계속 妊娠을

하겠다는 것이 全調査人員의 49.8%인데 比하여 男便들은 53.7%가 그런 反應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들을 바라다가 딸이 계속 생길 경우 몇명에서 中斷하겠느냐는 質問에 있어서도 婦人들은 9.8%가 딸 2명이후, 24.5%가 딸 세명까지, 11.9%가 딸 네명까지, 11.9%가 그래도 아들이 안성기면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比해서, 男便들은 딸들에서 포기하겠다는 층은 8.1%에 딸 셋까지 25.1% 딸 넷까지 10.1%가 그때까지 아들이 없으면 그런대로 포기하겠다고 대답하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전혀 假想的인 設問에 答한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現實인양 誇大解析을 하여온 點을 反省하면서 男兒選好가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을 보다 現實的으로 測定하는 道具의 開發에 힘써야 할 必要가 있다고 하였다.

多子女傾向의 人間의 基本的 慾求와 男兒를 갖고자 하는 人間의 社會的 慾求가 社會文化的 要因의 가장 重要한 要素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世界에서 男兒選好態度가 가장 強한 3個國中의 하나다(Coombs, 1973)²⁰⁾. 많은 經濟的研究들이 이미 韓國에 있어 男兒選好라는 變數가 出産行爲에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男兒選好로 因해 적어도 하나 以上の 男兒를 갖고자 하므로 結果的으로 子女數의 增加現象을 갖고 있고, 小數家族으로 이끌고자 하는 家族計劃實踐에 큰 障礙가 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또 1973年度의 調査¹⁷⁾에 의하면 理想子女數는 3.1명이나 合計出産率, 即 1명의 婦人이 一生동안 갖는 子女의 數는 平均 4.1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理想子女數보다 1명이 더 많다. 이는 아직 男兒選好思想이 社會 여러 계층에 強力하게 지배되고 있는데 큰 影響을 받은 때문이라고 보겠다.

즉 1973年¹⁷⁾ 조사에 의하면 婦人들이 생각하고 있는 理想男兒의 平均은 1.92명으로서 거의 2명 수준이다. 또 한편 2명의 男兒를 이상적이라고 한 비율은 71%이며 3명의 男兒가 이상적이라고 한 비율도 무려 10%나 된다.

理想子女數는 3명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男兒女兒 選好의 比率이 거의 2:1이 되고 있기 때

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確率上으로도 理想子女數보다 實際子女數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이와같은 子女觀은 現存子女數에 따르는 婦人들의 家族計劃實踐率로 보아서도 잘 立證되고 있다. 아들이 돌인 婦人中에 避妊을 實踐하는 率은 45%나 되는데 反해 딸이 돌인 婦人中에서는 5%만이 避妊을 實踐하고 있다. 이러한 男兒選好思想이 뚜렷한 理由는 우리들 社會에 아직도 男尊女卑의 觀念이 潛在해 있고 制度的으로도 여러面에 있어서 男性優位의 時代가 尙存하고 있는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아직 子女를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욱 아들을 더 좋아하거나 꼭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나라의 家族計劃事業의 根本的인 障礙로 되어있다. 전과, 인세, 강연선전들을 통하여 여러해에 걸쳐 우리의 五管을 자극하는 家族計劃事業만으로는 子女觀에 대한 根本的인 規範의 變化는 현저하지 않을 뿐아니라 방금의 社會制度나 家族法 또는 學校 및 社會教育에 있어서나 家族計劃에 있어서는 높고 나가지 않으면 안될 障礙가 가로 막혀 있음을 實感하게 된다¹⁷⁾.

結 論

1974年 10月부터 1977年 9月까지의 3年間에 걸쳐 최근 盛行하는 女性不妊手術을 받은 主婦 900명에 對하여 그 家庭的 環境 即 妊娠, 流産回數, 教育程度, 生兒數 및 性比等を 調査 檢討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被術主婦의 年齡은 全例 900名中 31~35歲群이 가장 많아서 43.2%이며, 다음에 36~40歲의 27.8%, 26~30歲 24.0%이었으며 平均年齡은 33.3歲이었다.

(2) 被術主婦의 教育程度는 國卒群이 37.3%, 로 제일 많고, 中卒群이 28.7%, 高卒群이 24.3%의 순이였으며 비교적 高等教育을 받은 主婦들은 永久避妊의 受術者가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男便의 教育程度는 한급씩 높아서 高卒群이 37.6%, 專門大學卒群이 29.7%, 中卒群이 19.9%어서 그 대부분이 高卒 이상 이었다.

(3) 主婦 853명중 5회의 妊娠을 경험한 수가

18.4%로서 가장 많았으며 4회 경험자가 16.2% 3회 경험자가 13.3%, 최소經妊婦인 1회가 0.4%, 最多는 23회의 (0.1%) 妊娠경험을 갖은 主婦도 있었으며, 平均妊娠回數는 6.0 이었다.

(4) 經驗한 流産回數는 自然流産에서는 無經驗이 91.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이 1회의 5.9%, 2회의 1.8%의 順으로서 確實히 최근에는 自然流産數는 적어졌음을 보였는데 반해서 人工流産에 있어서는 無經驗者가 16.7%, 뿐이었으며 1회 有經驗者가 20.5%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2회의 17.7%, 3회의 14.6%였으며 최고 20회 이상이 2例(0.2%)가 있었으며, 平均 2.79 이었다.

(5) 被術當時의 生存子女數를 검토하여 보면 3兒를 가진 主婦(45.0%)가 永久避妊手術을 제일 많이 받았으며 다음이 2兒의 26.5%, 4兒의 19.7%이며, 平均 子女數는 3.03 이었다.

(6) 被術主婦의 子女의 性비에 있어서 1兒를 가진 主婦는 18例中 1男無女가 17例인데 비하여 無男 1女는 1例에 不過하였다.

2子女 主婦에 있어서는 그 대부분이(46.3%) 2男無女인데 비하여 無男 2女는 1.8%뿐이었다.

3子女 主婦에 있어서는 3男無女가 16.5%인데 비해 無男 3女는 1.5%에 불과하다.

4子女 主婦에서는 4男 無女가 4.1%인데 비하여 無男 4女가 1.8%였고, 5子女 主婦에서는 5男 無女가 3.9%인데 비해 無男 5女는 한 例로 없었다. 또 6명의 子女를 가진 主婦에 있어서는 3男 3女가 3例인데 비해 1男 5女는 1例에 지나지 않았다.

이상으로 보아 一般的으로 2兒 以上을 가지면 斷産手術에 臨하는 傾向이 보이고 특히 3兒를 가진 主婦의 進出이 뚜렷하다. 그러나 같은 數의 子女에 있어서는 男兒가 없이는 斷産에 응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阻害가 介在하는 듯하다.

다시 말해서 5男 無女보다도 無男 5女에서 不妊手術을 받는 主婦의 數가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보아 男兒選好의 思想이 不妊手術을 받기로 決心하는데 多大한 阻害的인 影響을 주는 큰 要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表面的인 數字를 분석하여 그 저변에

같은 原因을 살펴볼 때 人口問題해결을 위한 努力은 역시 기초작업으로는 成人을 대상으로 한 方法論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全般的인 學校教育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自己들의 家庭의 크기 大家族과 小家族에 對한 태도와 價値觀을 確立하여 한 국민으로서 또한 子女의 父母로서 가족 규모에 對한 올바른 判斷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參 考 文 獻

- 1) 家族計劃研究院：世界人口의 成長, 人口問題, p.2.
- 2) 杉本, 外：女性不妊術의 現況と 將來, 産婦人科의 世界, 27, 851, 1975.
- 3) 家族計劃研究院：人口問題 p.25.
- 4) 家族計劃研究院：人口問題 p.143.
- 5) 權彝赫：人口와 保健, 醫學研修講座, 第11輯, p.1, 서울大學醫科大學醫學教育研修院, 1975.
- 6) 張潤錫：電氣燒灼法에 依한 腹腔鏡不妊術의 臨床的 研究, 大韓産婦誌, 20, 69, 1977.
- 7) 元秉泰 外：腹腔鏡에 依한 永久避妊術, 大韓産婦誌, 18, 197, 1975.
- 8) W.B. Black.: *Jour. of Obst. and Gyneec.*, 7:111, 1971.
- 9) Hyun Mo Kwak, et al.: *A Comparison of Laparoscopic Tubal Occlusion by Falope Ring and Electrocautery, Korean Jour. of Obst. and Gyneec.* 19,23,1976.
- 10) 金, 李, 外：산후난관결찰술이 임신에 미치는 影響, 경희의대 논문집 1, 163, 1976.
- 11) 하정환 외：Yoon's Falope Ring에 依한 卵管不妊術時 Lidocaine Jelly의 效果, 大韓産婦誌 19, 235, 1976.
- 12) 정, 우, 이：난관불임술에 관한 임상적 고찰, 大韓産婦誌, 19, 671~7, 1976.
- 13) 이국, 이영호 외：난관불임수술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16, 185, 1974.
- 14) Prystowsky and Eastman.: *Perperal Sterilization Am. Jour. Obst. and Gyne.* 15

- 8, 463, 1955.
- 15) 元, 外: 腹腔鏡에 의한 永久避妊術, 大韓產婦誌, 18, 197, 1975.
- 16) 朴寅緒 外: 腹腔鏡不妊術 臨床的 觀察, 大韓產婦誌, 18, 173, 1975.
- 17) 大韓家族計劃協會: 家族計劃 事業의 阻害要因과 對策
- 18) R. Clifford Wheelie.: *Am. Jour.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6:38, 1971.
- 19) 朴亨鍾, 鄭慶均, 韓達鮮: 韓國農村男便들의 家族計劃行爲에 관한 研究, 家族計劃論集, 家族計劃研究院, 第3號, 4月, 11, 1976.
- 20) Coombs, L.G. and Freedman, R.: *Preference about Sex of Children*, Unpublished manuscript, Population Studies Center, Univ. of Michigan, 1973, cited from Park, Kim, *Jour. of Family Planning Studies*, Korean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Vol 3, 1976.
-